

안 산 Y M C A 지 역 인 턴 십

베 트 남 팀 지 역 훈 련 보 고

라 온 아 띠 1 8 기 베 트 남 호 치 민 팀



01

팀 소개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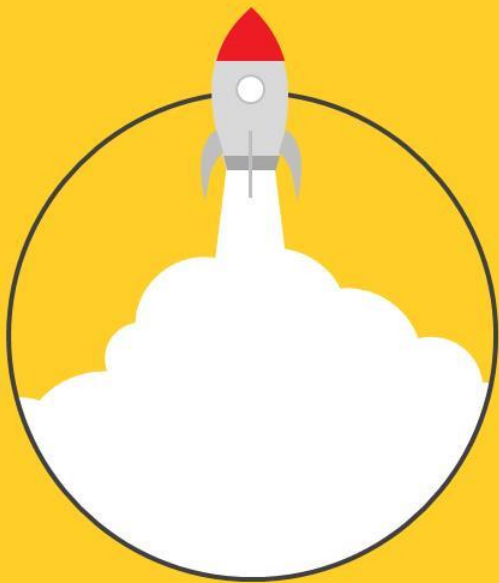
활동/생활 소개

03

고민 거리

04

공유 거리



팀 소개

라운아띠18기 베트남 호치민팀을 소개합니다.



Xin chào!!
Việt nam Hồ chí minh



이수연

#베트남어는어려워
#성인군자



오재열

#안산의아들
#스파크형



양소희

#허언증
#스파크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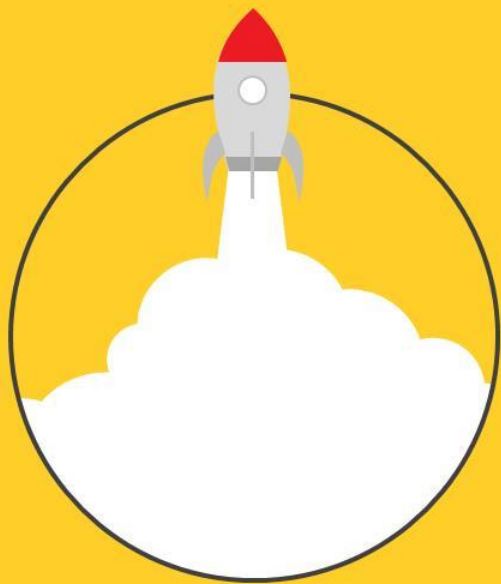
이상표

#나홀로대학원
#세상의소금



이수민

#폼생폼사
#수완좋은활동가



활동/생활 소개

우리가 안산에서 3주간 지역훈련을 하며 보낸 시간들



안산 탐방

안산 1일 탐방



단원고등학교



세월호 기억전시관



세월호 기억교실



다문화 거리



다문화 지역센터



단원고등학교
세월호 기억전시관
세월호 기억교실
다문화의 거리





1

우리가 전체국내
훈련에서 다룬 토
론 주제인 '세월호
참사'와 관련된 장
소를 직접 방문해
보니 제 3자의 입
장에서 바라보던
나 자신도 그 참사
의 '당사자'라는
것을 느끼게 되었
다.



2

다문화 거리에서
는 문화의 다양성
과 안산 내의 이주
민들이 많이 거주
하고 있다는 것에
대해 직접 실감할
수 있는 계기가 되
었다.



3

안산을 자유롭게
탐방할 수 있는 기
회를 가짐으로 우
리가 안산을 더 쉽
게 이해하고 다가
갈 수 있었다.





지역활동가
인터뷰

4.16인산시민연대



4·16 시민연대 위성태 사무국장님

- 청년이란 미래다.
- 청년이 있어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.
- 구조적인 문제는 청년 한사람이 하기는 어렵다.
- 개개인의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.



안산YMCA 강신하 이사장님

- 청년은 너무 꿈이 없는 것 같다.
- 청년 모두 도전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.
- 청년운동은 남녀의 구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
- 청년들이 마음을 놓고 먹고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했으면 좋겠다.



안산YMCA

이필구 사무총장님

- 라온아띠에 왜 지원했고,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.
-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.



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선한주 선생님

- 국제자원활동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

- 본인이 네팔 해외봉사를 하면서 느꼈었던 현실적인 조언



청년유니온 문지원 대표님

- 사회운동에 있어 소위 '시민, 국민, 청년' 등 당사자들을 객체화 하지 않고 주체화 해야 한다.
- '시민운동인데 시민이 없다' 청년 유니온의 경우도 여기게 관심있는 청년들이 왕래해야 한다. 그들이 주인이 되어야 성과가 날 수가 있다.



녹색소비자연대 유희화 처장님

- 350ppm을 매년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
- 캠페인을 해서 하루이틀로 끝낸다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.
- 라온아띠 친구들이 이를 지속하고 뿌리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.
- 우리는 ‘소비자’ 소비자로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지만 권리의식이 없으면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. 그 권리를 자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.





1

평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효과적인 인터뷰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.



2

예비 국제 자원 활동가로서 자원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



3

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지만 결국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.



4

사회운동에 가장 앞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생각과 활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데 본보기가 되었다.





석수골 작은도서관
프로그램



아이 돌봄 및 독서 활동

미술관 전시회 관람



<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>

- 예술가들은 왜 괴짜처럼 그림을 그리는가?
-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?
- 작품 속 방탄소년단을 찾아라!



도서관 여름휴가 프로그램

- 비빔밥 만들어 먹기
- 신나는 물총놀이
- 나만의 수박 수영장 만들기





1

석수골 도서관은 우리 팀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곳이었다.우리가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국내에서 미리 경험해봄으로서 문제에 대해 팀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보는 시간이 되었다.



2

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도서관과 다른 선부2동만의 소통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석수골 도서관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왜 이러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.



3

전시회 관람에 있어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다.



4

우리가 필히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.



아이들과 함께하는 350PPM





1

참여하는 아이들의
나이대가 다양
했음에도 불구하고
연령을 미리 파악
하지 못해 전체
적인 아이들의 수
준을 고려하지 못
한 것이 아쉬웠다.



2

프로그램 기획에
있어서 세심한 부
분의 중요성을 느
끼게 되었다.



3

부족하긴 했지만
적절한 업무 분담
이 이루어졌다는
생각이 들었고, 베
트남 팀의 첫 프로
젝트인 350PPM
이 걱정했던 것 보
다 잘 이루어져서
뿌듯한 느낌이 들
었다.



4

교육활동을 통해
아이들의 특성(집
중력, 행동)을 이
해하는데 도움이
되었다





캠페인 활동



캠페인의 위한
관계 기관(주민센터, 구청) 및 활동가들의 도움

선부2동 마을 환경 미화





1

임이고르씨를 활동가로서 만났지만 다문화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,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.



2

외국인이 바라본 부정적인 한국의 모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.



3

마을 환경 미화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해 아쉬웠다.



4

국민인 나 자신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는데 이주민이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.





1

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자체에 의의를 둔다.



2

미래세대를 살아갈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.



3

처음에는 지역의 큰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것부터 바뀌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.



4

향후 베트남에 가서도 이러한 문제를 도출하고 이와 같은 훈련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.



물 절약 캠페인



-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 절약 방법을 써주세요!
- 공공 화장실에 물 절약 스티커 붙이기





1

YMCA와 녹색소비자연대가 함께 준비한 물 부족 캠페인을 통해 베트남에 가서도 우리가 현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.



2

물 부족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캠페인을 통해 한 사람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행동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함을 알게 되었다.



3

수동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며 기획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딪쳐보는 용기가 생겼고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될 것 같다.





클래스 수업



베트남 실용회화
국제자원활동 지역의 현지 언어를 습득



베트남 문화
국제자원활동 지역의 현지의 문화이해 습득.

베트남어 수업

원진아 선생님



마마무 - 너나해



블랙핑크 - 뚝뚝뚝



트와이스 - Dance Night Away



싸이 - New Fa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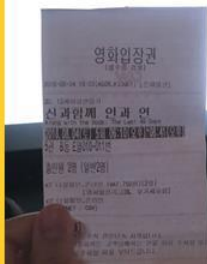
K-POP댄스 수업

믹스&매치 크루



팀원 생활

문화생활 영화감상



함께 하기



리터너들과의 홈커밍 데이



규홍 간사님과의 만남❤️



350PPM 실천
: 자전거 타고 퇴근

세월호교회 8월 예배참석





1

기독교 신자가 아닌 나로서는 예배 참여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.



2

YMCA에 대한 유대감이 느껴졌다.
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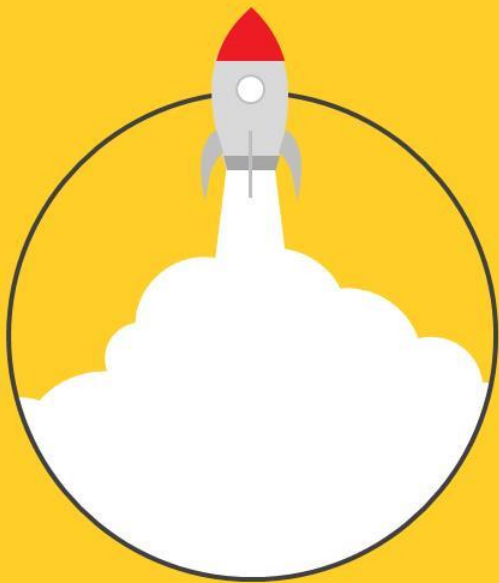
세월호 예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곳에 와서 처음 알았고 또한 예배가 끝나고 화랑유원지 도보 행진을 통해 봉안 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.



4

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.





고민 거리

지역훈련을 하며, 앞으로의 훈련을 바라보며

고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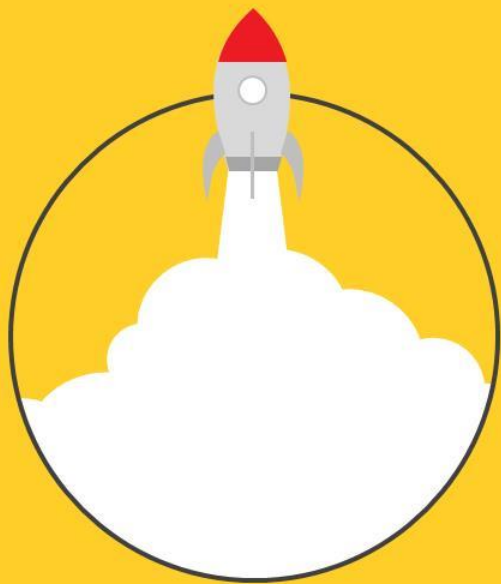


- 과연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?
- 제대로 된 나눔을 하지 못하였다.
- 각자 다른 우리가 잘 맞춰 나갈 수 있을까?
- 간사님이 너무 바쁘시다.
- 우리가 일정에 의해 쫓겨가는 것 같다.
- 팀과 개인의 요구가 잘 조율될 수 있을까?
-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알고 싶다.

고민



- 팀워크가 과연 잘 맞는 것인가?
- 우리가 잘하려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인가?
- 새로운 기관(베트남 YSD)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
- 잘 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? / 잘 싸우고 싶다.
- 지역사회에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?
-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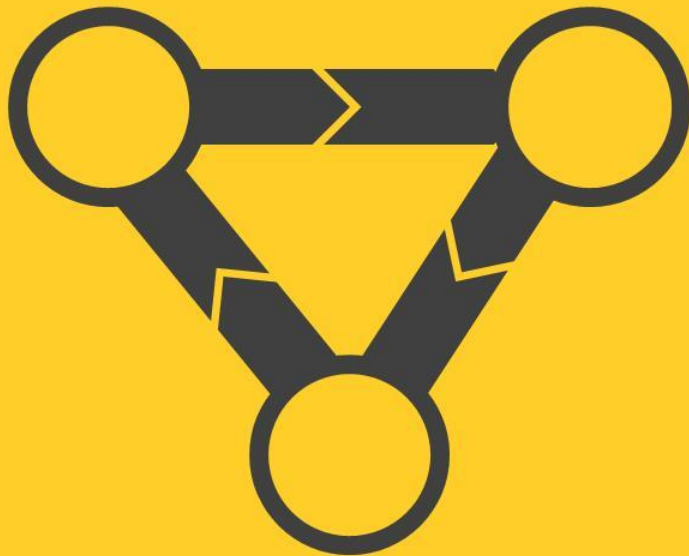


공유할 거리

우리가 느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

나눔의 중요성

나눔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
팀원의 이해와 팀 워크 차이



도움 요청

도움이 필요 할 때는
망설이지 말고 도움요청하기

팀의 소중함

팀원의 소중함과 가치









Xin Cảm ơn.

Hẹn gặp lại